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덕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1년 7월 2일 접수: 2021년 8월 30일 수정: 2021년 8월 30일 채택)

The Effects of Dysmenorrhea on Clinical Competence in Early Stage Nurses

Duck-Hee Moon[†]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Received July 2, 2021; Revised August 30, 2021; Accepted August 30, 2021)

요 약 :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초보간호사 155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월경곤란증은 2.77점, 임상수행능력은 3.44점 이었고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26, p=.002$).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은 자율신경계 반응이고($\beta=-.261, p=.001$) 설명력은 22.1%였다. 따라서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월경곤란증의 자율신경계 반응 완화를 위한 중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초보간호사, 월경곤란증, 임상수행능력, 종합병원, 관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on early stage nurse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on early stage nurses from september 11 to september 30, 2020.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program. The degree of dysmenorrhea was 2.77 points, clinical competence was 3.44 points. Dysmenorrhea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clinical competence($r=-.226, p=.002$). Respons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was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beta=-.261, p=.001$). The model explained 22.1% of the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inter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respons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e of early stage nurses.

Keywords : Early stage nurse, Dysmenorrhea, Clinical Competence, General hospital,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E-mail: duckimoon@naver.co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조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래사회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한 직업적인 인기와 간호사 증원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1]. 초보간호사가 임상 적응기간 동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임상업무수행이며 이론적인 지식과 별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초보간호사의 미숙한 업무수행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사유가 되며[3], 병원규모가 커서 복합적인 업무수행이 많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조사되었다[4]. 초보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육체적 피로, 직무긴장 등이 있으며 특히 월경기간 중 월경곤란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5]. 초보간호사의 잦은 이직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증가 등 환자의 경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또한 병원 차원에서는 재직 중인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와 신규 간호사 채용으로 인한 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7]. 따라서 질적인 간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병원 관리자는 초보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월경곤란증은 월경시 발생하는 모든 이상 증상을 포함하는 생식기계 문제로 가임기 여성의 92%가 월경기간 중 월경곤란증을 느낀다고 하였고[8], 60.2%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결근할 정도 혹은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할 정도의 월경통증을 호소하였다[9]. 특히 직장여성은 미취업 여성에 비해 월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월경시 불편감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효율을 떨어뜨리게 하였다[10].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여성들은 생리통이 심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월경곤란증은 명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체적 피로감, 스트레스 등이 월경시 경험하게 되는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12], 월경주기 중 불안, 우울, 불안정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월경곤란증을 가중 시킨다고 보고되었

다[1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더불어 초혼 및 출산 연령의 증가는 20대에 월경에 노출되는 기간의 연장을 가져오고 매달 주기적으로 월경관련 문제를 겪게 한다[14].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 제공자이자 교육자, 옹호자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강 모델로서 스스로의 건강에 책임을 가지고 전문 간호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성이면 당연히 감수할 부분으로 월경곤란증을 소홀하게 여겨 왔으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여성건강의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15]. 20대 여성이 월경곤란증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휴식을 취하거나 진통제 복용이 대부분이었으며[16], 근무연수가 짧아 대부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초보간호사는 매달 발생하는 월경곤란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없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4]. 기존 연구들 중 월경곤란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국한되었으며, 대부분 월경곤란증의 증상에 따른 중재에만 치우쳐져 있다. 또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월경관련 연구는 있지만 초보간호사로 한정하여 연구한 사례가 없어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월경곤란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고 중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병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원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정도와 임상수행능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보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정도를 파악한다.
-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 정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 정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종합병원 3곳에 재직 중인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정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연구를 허락한 3곳의 병원에 재직 중인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 19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조사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35부를 제외하고 최종 155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설문지에 설문안내서와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설문참여를 결정하고 연구 중간이라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절하고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설문지는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하였다가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G*Power analysis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41명 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인 155명은 적절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논문들을 참고하여 연령, 종교, 결혼여부, 재직경력, 근무형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장 내 관계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월경곤란증

월경곤란증은 Moos의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1968)의 월경증상도구를[17] 정미경(1999)[18]이 수정 보완한 30문항의 자가 측정 설문도구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통증 5문항, 주의집중저하 3문항, 행동변화 5문항, 자율신경계 반응 9문항, 수분축적 2문항, 부정적 정서 6문항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심하다' 5점에서 '전혀 없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의 합산 점수가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곤란증이 심함을 의미한다. 정미경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Schwi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19]을 기반으로 이원희,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1991)[20]이 개발한 45문항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최미숙(2005)[21]이 수정 보완한 자가 측정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한다' 5점에서 '매우 잘 못한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의 합산 점수가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곤란증, 임상수행능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수행능력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두고 월경곤란증의 하부요인중 상관관계가 확인된 설명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5.38세로 25-26세의 연령이 56.8%(88명)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하가 27.1%(42명), 27세 이상이 16.1%(25명)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63.9%(99명), 있다는 응답이 36.1%(56명)였으며 미혼이 97.4%(151명), 기혼이 2.6%(4명)였다. 임상경력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41.3%(64명)이고 1년 미만이 36.1%(56명), 2년 이상이 22.6%(35명)였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98.1%(152명), 통상근무가 1.9%(3명)이었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85.2%(132명) 좋음이 5.8%(9명) 좋지 않음이 9.0%(14명)이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이 76.8%(119명) 좋음이 14.2%(22명), 좋지 않음이 9.0%

(14명)이었으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 78.7%(122명) 좋음이 9.7%(15명), 좋지 않음이 11.6%(18명)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는 직업만족도($F=36.825$, $p=.000$), 대인관계($F=50.240$, $p=.000$), 건강상태($F=52.146$, $p=.000$)에서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직업만족도에서 좋음이라는 응답의 대상자가 보통 또는 좋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좋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1. Dysmenorrhea,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M±SD	Dysmenorrhea		Clinical Competence	
			M±SD	F/t(p) Scheffe	M±SD	F/t(p) Scheffe
Age	≤24	42(27.1)	2.91±0.72	0.431 (.512)	3.55±0.51	1.567 (.213)
	25-26	88(56.8)	2.68±0.75		3.40±0.53	
	27≥	25(16.1)	2.85±0.79		3.41±0.58	
			25.38±4.32			
Religion	Yes	56(36.1)	2.64±0.83	-1.594 (.113)	3.47±0.51	0.585 (.559)
	No	99(63.9)	2.84±0.70		3.42±0.55	
Marital state	Single	151(97.4)	2.79±0.74	-1.843 (.067)	3.43±0.52	0.517 (.640)
	Married	4(2.6)	2.09±0.93		3.71±1.05	
Clinical career (yr)	<1	56(36.1)	2.85±0.72	0.010 (.922)	3.36±0.51	0.998 (.319)
	1≤-<2	64(41.3)	2.64±0.83		3.45±0.59	
	2.0≥	35(22.6)	2.88±0.63		3.48±0.47	
Work pattern	Shift work	152(98.1)	2.77±0.75	-0.253 (.800)	3.43±0.53	-1.552 (.123)
	Ordinary work	3(1.9)	2.68±1.02		3.91±0.49	
Satisfaction of job	High ^a	9(5.8)	1.47±0.46	36.825 (.000)	3.24±0.70	0.118 (.731)
	Middle ^b	132(85.2)	2.80±0.68		3.48±0.52	
	Low ^c	14(9.0)	3.31±0.65		a<b,c. b<c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High ^a	22(14.2)	1.87±0.67	50.240 (.000)	3.45±0.69	0.806 (.371)
	Middle ^b	119(76.8)	2.87±0.64		3.46±0.49	
	Low ^c	14(9.0)	3.31±0.65		a<b,c. b<c	
Health state	Good ^a	15(9.7)	1.59±0.52	52.146 (.000)	3.31±0.64	0.650 (.421)
	Moderate ^b	122(78.7)	2.84±0.65		3.49±0.52	
	Bad ^c	18(11.6)	3.25±0.65		a<b,c. b<c	

Table 2. Level of Dysmenorrhea, Clinical competence

Variables	Mean \pm SD
Dysmenorrhea	2.77 \pm 0.75
pain	3.04 \pm 0.91
decrease attention	2.39 \pm 0.93
behavioral change	2.42 \pm 0.93
respons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2.57 \pm 0.78
moisture accumulation	3.05 \pm 1.12
negative moods	3.23 \pm 1.08
Clinical Competence	3.44 \pm 0.53
nursing process	3.35 \pm 0.56
nursing skill	3.44 \pm 0.58
relation of education/cooperation	3.46 \pm 0.63
personal relations/communication	3.50 \pm 0.63
professional development	3.50 \pm 0.62

3.3 대상자의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의 평균 점수는 2.77 (± 0.75)점이었다. 6항목으로 구분한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통증 3.04(± 0.91)점, 주의집중저하 2.39(± 0.93)점, 행동변화 2.42(± 0.93)점, 자율신경계반응 2.57(± 0.78)점, 수분축적 3.05 (± 1.12)점, 부정적정서 3.23(± 1.08)점 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점수는 3.44(± 0.53)점 이었다. 5항목으로 구분한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 보면 간호과정 3.35(± 0.56)점, 간호기술 3.44 (± 0.58)점, 교육/협력관계 3.46(± 0.63)점, 대인 관계/의사소통 3.50(± 0.63)점, 전문직발전 3.50 (± 0.62)점 이었다(Table 2).

3.4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226$, $p = .002$)가 있었다. 두 변수들의 하부요인을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월경곤란증 하부요인들 중 주의집중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부정적 정서에서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3.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는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점수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고, 월경곤란증 하부 요인들 중 상관관계를 보인 주의집중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부정적 정서를 독립변수로 두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으며 추정된 회귀모형에서 유난히 작은 공차한계나 월등하게 큰 VIF는 보이지 않아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Durbin-Watson은 2.224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1.178($p = .001$)로 유의했으며 22.1%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월경곤란증의 자율신경계반응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4. 논 의

본 연구는 병원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정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은 2.77(5점 만점)점으로 측정되었다.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곤란증을 연구한 사례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3.27점과[23] 병원여성근로자에게 측정한 3.03점[22] 보다는 낮은 점수이고, 다른 측정도구

Table3. Correlation for Dysmenorrhea and Clinical Competence

Variables		Clinical Competence r(p)					
		nursing process	nursing skill	relation of education/cooperation	personal relations/communi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total
Dysmenorrhea r(p)	pain	-.055 (.494)	-.098 (.223)	-.129 (.110)	-.098 (.226)	-.113 (.163)	-.109 (.176)
	decrease attention	-.115 (.152)	-.115 (.154)	-.186* (.021)	-.165* (.040)	-.190* (.018)	-.170* (.035)
	behavioral change	-.193* (.016)	-.148 (.067)	-.220** (.006)	-.230** (.004)	-.282** (.000)	-.237** (.003)
	respons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226** (.005)	-.216** (.007)	-.251** (.002)	-.215** (.007)	-.252** (.002)	-.261** (.001)
	moisture accumulation	.063 (.433)	-.018 (.824)	-.075 (.351)	.001 (.986)	-.020 (.804)	-.009 (.912)
	negative moods	-.137 (.090)	-.109 (.176)	-.198* (.014)	-.164* (.041)	-.198* (.013)	-.178* (.027)
	total	-.169* (.035)	-.165* (.040)	-.238** (.003)	-.202* (.012)	-.243** (.002)	-.226** (.002)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Clinical Competence

Variables	B	SE	β	t	p
Respons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178	.053	-.261	-3.343	.001

F=11.178(p=.001) R²= .243 Adj R²= .221 Durbin-Watson=2.224

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1.98(4점 만점)점과[5]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한 1.91점(4점 만점)[28]보다는 높은 점수였다. 임상간호사와 병원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월경곤란증 정도가 심한 대상자를 선별한 실험연구로 단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월경곤란증은 20대 미혼 여성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4]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25세의 젊은 초보 간호사로 근무시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체적 움직임이 많고,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잦은 변화로[5] 월경곤란증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월경곤란증의 하위 분류에서는 부정적 정서, 수분축적, 통증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초보간호사가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통증과 수분축적은 몸을 무겁게 하여 간호 업무를 위한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는 환자 및 보호자 또는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우울감 또는 의욕저하로 비춰질 수 있다.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간호사들 대부분은 불편감을 참거나 약물복용을 선택하고 있었다[16].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NSAID 계열의 진통제는 속쓰림 위 출혈 오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습관적인 복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월경곤란증의 증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비약물적인 증재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증재교육을 실시해주는 것도 병원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표를 계획할 때 가급적 본인의 월경 주기를 맞추어 휴일을 지정해 생리휴가에 실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3.44(5점 만점)점으로 측정되었다.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4.1(5점 만점)점과 [25] 종합병원 초보간호사에게 측정한 2.93(4점 만점)점[26] 보다 낮았다. 임상수행능력은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향상되는데[25, 27]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력 2년 미만의 간호사가 많아 본인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자가 보고 설문 측정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하위 분류에서는 간호과정에서만 3.4점의 낮은 점수를 보여 초보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 사정, 중재, 간호기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월경곤란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초보간호사는 병원 업무의 과중,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 동료 간호사 및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으며[28],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는 월경곤란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월경곤란증 정도가 심한 것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정도를 확인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며[29, 30] 자궁내막증, 과다 월경 등 부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월경곤란증을 심하게 겪을 수 있다 [5].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세부요인을 분류하여 내외과적, 산부인과적 질환들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를 비교해볼 것을 제안한다. 월경곤란증을 변수로 본 다른 연구에서는 [6, 22] 교대근무가 월경곤란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월경곤란증 평균점수가 통상근무자 점수보다 높긴 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상근무자의 월경곤란증 점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의미 있는 변수가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군, 기혼, 10년 이상의 임상경력 등에서 그

렇지 않은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나[25] 본 연구에서는 경력 3년 미만의 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월경곤란증이 심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간호사의 월경곤란증과 직무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5]가 있고 직무스트레스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간접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어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 월경곤란증의 하부요인 중 자율신경계반응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월경기간 중 특히 예민해지거나, 피곤함, 현기증, 식은 땀 등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찾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보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원 환경 조성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년 미만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인 차이와 병원 특성에 따라 결론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할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결론

연구결과 월경곤란증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경곤란증의 하부요인 중 자율신경계반응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보간호사의 월경곤란증에 대한 중

재교육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대상자의 확대 연구와 월경곤란증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1년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Hospital Nurses Association, Retrieved May 15, 2017, from <http://www.khna.or.kr/main.php>, (2017).
2. J. O. Park, K. I. Jung, "Effects of advanced beginner-stage nurses' sense of call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reten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2, pp. 137-147, (2016).
3. Hospital Nurses Association : Factual survey of manpower deployment status. Retrieved March 8, 2019, from <http://www.khna.or.kr/web/from/information/resource.php>, (2019)
4. B. H. Park, S. Y. Kim, "Patterns and influential factors of inter-regional migration of new and experienced nurses in 2011-201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7, No. 5, pp. 676-688, (2017).
5. J. Y. Shim, A study on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rimary dysmenorrhea among newly hired general hospital nurs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9).
6. L. H. Aiken, S. P. Clarke, D. M. Sloane, J. Sochalski, J. H. Silber, "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mortality, nurse burn out, and job dissatisf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88, No. 16, pp. 1987-1993, (2002).
7. L. S. Cowin, "The effects of nurses' job satisfaction on retention: an Australian perspectiv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32, No. 5, pp. 283-291, (2002).
8. T. H. Kim, H. S. Park, H. H. Lee, S. H. Chung, "Premenstrual syndrome and dysmenorrhea in the career women at bucheon city,"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 54, No. 9, pp. 523-528-278, (2011).
9. J. I. Kim, S. H. Han, "Health status,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and the degree of prenatal management in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0, No. 3, pp. 226-234, (2004).
10. W. Y. Hwang, "Women's menstrual discomforts and coping," *Health & Nursing*, Vol. 16, No. 2, pp. 41-50, (2004).
11. S. K. Kim, Job-related stress and health of professional wome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4).
12. Gilly A. *Women's Sexual Health*, pp. 1-590, Second edition, Mosby Publishers, (2001).
13. M. Rani, U. Singh, G. G. Agrawal, S. M. Natu, S. Kala, A. Ghildiyal, N. Srivastava, "Impact of yoga nidra on menstrual abnormalities in females of reproductive ag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Vol. 19, No. 12, pp. 925-929, (2013).
14. K. S. Jang,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0).
15. Y. S. Chang, C. N. Kim, "Effects of Koryo Hand Therapy on menstrual cramps and dysmenorrhea in college women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4, No.3, pp. 432-444, (2003).
16. K. E. An, "Perimenstrual pain and coping behaviors in young women," *Health & Nursing*, Vol. 13, No.2, pp. 29-40, (2001).
 17. R. H. Moos, "The development of a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Psychosomatic medicine*, Vol. XXX, No.6, pp. 853-867, (1968).
 18. M. K. Chung, A study on the menstrual knowledge, attitudes, symptoms and coping of high school girl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9).
 19. P. M. Schwrian, "Evaluation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Vol. 27, No.6, pp. 347-350, (1978).
 20. W. H. Lee, J. J. Kim, Y. S. You, H. K. Heo, K. S. Kim, S. M. Lim, "Development of cli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for Yonsei University*, Vol.13, pp. 17-29, (1990).
 21.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5).
 22. E. J. Oh, O. J. Jang, H. J. Jeong, H. J. Lee, E. J. Kim, "The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dysmenorrhea for women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113-123, (2008).
 23. H. J. Lee, Y. S. Lee, H. Y. Sin, E. Y. Song, H. J. Son, I. O. Kim, S. H. Im, S. Y. Choi, J. S. Kwon, M. M. Le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abdominal massage using aroma oil and ordinary oil on nurses' dysmenorrhea and painful menstrua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1, No. 2, pp. 121-133, (2006).
 24. H. K. Kim, "Impact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on dysmenorrh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Vol. 41, No. 2, pp. 236-244, (2011).
 25. J. A. Park, B. J. Kim,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Vol. 39, No. 6, pp. 840-850, (2009).
 26. E. Y. Kim,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of re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Catholic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8).
 27. E. M. Kim, K. J. Kang, S. A. Ryu,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for general hospital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1, No. 1, pp. 284-293, (2011).
 28. J. Y. Seo, M. Y. Kim,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dysmenorrhea, menstrual pain,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0, No. 5, pp. 756-764, (2008).
 29. H. Y. Kang,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and their menstrual dysfunction, dysmenorrhea and menstrual pain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8).
 30. H. M. Jung, Y. S. Kim, "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among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0, No. 2, pp. 196-204, (2004).